

제149호

발행일 : 서기 2020년 12월 10일
창간일 : 서기 1983년 8월 15일
구독신청 : (02) 2244-3717
(02) 2244-3710
FAX : (02) 2243-1073
E-mail : andongkimgu@naver.com

安東金氏 大宗會報

발행인 : 김석한
편집인 : 김상근
인쇄인 : 김원희
발행처 : 안동김씨대종회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우) 02435
홈페이지 : andongkimc.kr

2020년 한해를 정리하고 내년의 설계를 기획하며...



존경하는 전국의 안동김씨 종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얼마나 심려가 많으십니까?

대종회도 방역차원의 부득이한 조치로 중시조이신 충렬공(諱 方慶) 할아버지와 풍산의 냉평국대부인(冷平國大夫人) 죽주박씨(竹州朴氏) 할머니 세향(歲享)을 어쩔 수 없이 축소하여 70여 임원 및 지역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하였습니다.

씨족사회의 계승 발전은 제례와 같은 집단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소속감과 긍지를 고취하고 전통을 전수하는 것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관련행사들이 취소되고 축소되어 종친 간 소통도 약화되고 상호 무관심이 지속 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국회에서는 민법개정안(민법 제781조 자녀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 중에서 협으로 정한다)을 통과하여 오랜 관습법인 성과 본관의 존재를 없애 버렸습니다. 이는 조상을 본인들이 마음대로 선택하여 족보에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실로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대종회는 여러 난제에 대해 굳건히 대처할 것이며 선조님들의 위선 현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특히 우리의 뿌리와 역사를 계승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청소년들은 물론 어른

들도 접근하기 쉽게 만화책 또는 삽화를 넣은 동화책을 발간하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지난번 회장단회의 때 결정하여 위임해 주신 대종회관 건물 보수공사는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용역 계약을 하였으며 대행사는 공사전 인허가 사항 등 측량 및 안전진단 등을 끝내고 내년 봄에는 공사를 완공할 것입니다. 꼼꼼히 챙기고 감독하여 하자 없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종회의 가장 큰 업무는 종친 간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종회는 충렬공 선조님의 현손 15개 파종회로 구성되며, 각 파종회는 후손들의 소문중으로 이루어져 종사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종사는 모든 이해관계를 접고 양보와 타협으로 송조와 돈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충렬공 선조님의 혈맥이 흐르는 혈연관계를 잊지 말고 형제간 나아가 종친 간 소문중, 각 파종회의 화합만이 우리 안동김씨 후손들의 영광과 행운이 무궁할 것입니다.

금년의 남은 일들은 잘 정리하시고, 내년에는 코로나 전염병을 완전히 정복하고 한자리 모여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종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일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김석한(金錫漢)

공 고

안동김씨대종회 제54회 정기총회 개최

안동김씨대종회 회칙 제3장 각조에 의한 2021년도 안동김씨대종회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종친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대종회 발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일자는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로 인한 정부 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시: 2021. 3. 25(목) 오전11:00

상정안건

* 장소: 백범 김구기념관 (02)799-3421

1. 2020년도 수입·지출 결산보고 및 승인 건

2. 2021년도 예산안 승인

* 참석 회비: 30,000원

3. 2021년도 사업계획안 승인

4. 기타 상정안건 심의 및 승인



백범김구기념관 찾아오시는 길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임정로 26 (☎02-799-3400)

지하철

1. 효창공원앞역(6호선) 1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2. 공덕역(5,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6번 출구, 공덕지구대 앞에서 마포 17번 버스 이용
3. 숙대입구역(4호선) 2번 출구, 남영우체국에서 400번 버스 이용

버 스

1. 마포 17번(공덕역)
2. 400번(종로, 서울역, 숙대입구역), 2016번(한남동, 이촌동, 효창공원앞역), 용산 04(서부역)
3. 110A, B(신촌, 이태원, 삼각지), 740번(신촌, 강남역)

2020년 중시조 충렬공 고비위 시제 봉행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陰 11월 초9일) 안동시 녹전면 능동의 충렬공(휘 방경) 할아버지 능소(陵所)와 풍산 회곡의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할머니님 단소(壇所)에서 안동김씨대종회 김석한회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김윤만 문은공파종회장의 창홀에 따라 익원공파종회 재남회장의 초헌례를 시작으로 경건하고도 엄숙한 가운데 시제를 봉행하였다.

김석한 대종회장은 인사말에서 능동의 충렬공 할아버지 시제는 우리 종중의 대표적 제향으로 전국의 종친들이 묘역에 모여 숭조돈목 정신을 고취하는 뜻 깊은 자리인데,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축소 조정하여 제향을 모시게 된점 종원님들께 송구한 마음 이루 말

할 수 없다며 내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많은 후손들의 참여 속에 성대하게 제향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능동에서 시제를 마친 후 음수재(飮水齋) 마당에 거리제한 간격에 맞춰 차려진 식탁에서 국밥으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풍산을 회곡리로 이동하여 안정공파종회 봉기회장의 초헌례로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할머니님 단소에 제향을 모셨다.

시제를 마치고 대종회장은 참례자 전원에게 미니담요를 선물로 증정하고 제수준비로 고생하신 아주머니들께도 별도로 화장품을 증정하고 귀정길에 올랐다.

이날 분정은 다음과 같다.

분정(分定)	충렬공(휘 방경) 위		회곡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위	
초헌관(初獻官)	재남(在男)	(翼)파종회장	홍기(洪基)	(安)파종회장
아헌관(亞獻官)	재수(在洙)	(都)파종회장	재교(在敎)	(翼)안동종친회장
종헌관(終獻官)	형남(亨南)	(按)파종회장	재택(在澤)	(翼)전침공종친회장
진설(陳設)	흥식(興植)	(典)파종회장	흥식(興植)	(典)파종회장
대축(大祝)	동수(東洙)	(翼)안동유사	동수(東洙)	(翼)안동유사
집례(執禮)	윤만(潤萬)	(文)파종회장	윤만(潤萬)	(文)파종회장
찬인(贊引)	재구(在九)	(郡)판서공종회총무	재구(在九)	(郡)판서공종회총무
봉향(奉香)	영윤(榮潤)	(文)대종회이사	영윤(榮潤)	(文)대종회이사
봉로(奉爐)	현수(炫秀)	(按)파종회총무	현수(炫秀)	(按)파종회총무
사준(司樽)	태철(泰喆)	(翼)문영공종회총무	태철(泰喆)	(翼)문영공종회총무
봉작(奉爵)	태신(泰信)	(翼)대종회이사	태신(泰信)	(翼)대종회이사
전작(奠爵)	형식(亨植)	(翼)파종회이사	형식(亨植)	(翼)파종회이사
시도(時到)	태영(泰榮)	(郡)대종회부총장	태영(泰榮)	(郡)대종회부총장
직일(直日)	봉회(鳳會)	(都)대종회명예회장	선희(璇會)	(按)파종회명예회장



2020년 안동 향족대 현황 (₩12,650,000)

금액	소속, 이름	합계
3백만원	(翼)재남-파종회장	3,000,000
1백만원	(翼)석한 - 대종회장, (郡)준회-파종회장, (按)형남-파종회장	3,000,000
3십만원	문영공종회, 서운관정공파종회, (都)재수-파종회장	900,000
2십만원	(典)홍식·준교·관교, (都)봉회, (按)태성, (翼)재영, (正)태석, 판서공종회, 문온공파종회, 제학공파종회, 안렴사공파종회,익원공파종회, 안동종친회, (典)정남종친회, (翼)참의공종중	3,000,000
1십만원	〈개인〉 16명 (郡)태영, (文)영환,윤만, (安)홍기, (提)태헌, (按)선희·현수, (翼)성희·영수·재교·정묵·태성·동수·태신·태철·종성 〈단체〉 9명 인천종친회, 괴산종친회, (郡)파종회, 광탄종중, 장안종중, (副)파종회, (都)파종회, (提)수도권종회, (翼)전침공종회,	2,500,000
5만원	(郡)병수, (都)정중·희덕, (翼)재택,영화	250,000
합계		12,650,000
물품 찬조 현황		
(翼)석한 대종회장	5백만원 상당 미니담요 및 화장품	
〃	카펫트 (제전 깔개용) 2set (능동1, 회곡1)	
〃	격려금 30만원 = 능동 및 회곡 재사·묘소 환경정리	
(翼)용세 (신평양조장)	제주(祭酒) 2박스(1박스 20개) = 능동1, 회곡1	
문영공종회	스텐레스 세수기 2set (능동1, 회곡1)	
문영공종회	제전 깔판 (능동 2매, 회곡 1매)	
천공석재 (신중균)	호두과자 60개	

대종회 회장단회의 개최



2020년 10월 12일(월) 오전 11시 30분 대종회 회장단회의가 개최되었다. 광장동 인성하이텍 건물 6층 회의실에서 재적 회장단 31명중 19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하고 회순에 따라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및 인사, 대종회장 인사말씀이 계셨으며 업무 보고와 안전상정 토의 순으로 진행하여 한 시간 정도 개회 후 종료하고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회의 내용은 대종회장 인사말씀으로 “코로나 시국으로 금년 들어 처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생활하시는데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고 멀리서 오신 부회장님들의 이름을 한분 한분 거론하시며 어렵게 만든 자리인 만큼 항상 조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라고 강조하며” 참석자 모두에게 마스크를 손수 나눠주며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상근 사무총장은 대종회 업무보고에서 대종회보 원고 수집과 업그레이드 된 인터넷축보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어서 석한 대종회장은 안전을 상정하여

- 1) 휘경동 대종회관 보수공사 건을 토의하였다. 여러 토론 끝에 건물 보수 공사는 대종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기로 만장일치 박수로 가결하였다.
- 2) 충렬공 고비위 시제 봉향 건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다수인의 이동 및 모임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전일 입재 및 버스동원은 양기로 하고 최대한 제물도 줄여서 간소하게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 3) 안동 회곡동 위토 명의 이전에 관한 건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동 풍산을 회곡리에 소재한 김수호외 여러 종인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위토) 명의를 대종회 명으로 이전 등기에 관한 건은 사무처에 위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4) 대종회 임원의 인사문제 협조요청 건, 접수된 협조요청 공문에 대한 사무총장 으로 부터의 설명을 듣고 해당임원의 상황 설명을 들었으며, 일부 소문중간 불협화 문제로 의견 대립과 법적 소송 다툼으로 까지 진행되어 당해 문중의 금전적 손실 및 전체 종친 간 불신이 초래되고 있음은 대종회에도 불미스런 일로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하였다.

2020년 문온공파 정기총회 및 금수단(金水壇) 세향(歲享) 성료(盛了)



문온공파총회 정기총회 및 금수단(金水壇)·부사공 명리(明理) 할아버님 세향(歲享)이 10월18일(日) 10:30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558번지, 가양리 산240-6번지 선영에서 있었다.

C-19로 인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단체참배를 지양하고 개인참배 위주로 축소 운영한 결과 예년에 크게 못미치는 40여 종인만이 참석하여 선조님을 위덕(偉德)을 기렸다.

금수단은 양간공 승택(承澤)·낙랑국부인 경주김씨, 상락군 묘(昴)·삼한국부인 여흥민씨, 문온공 척약재(惕若齋) 구용(九容)·해평군부인 해평윤씨와 당성군부인 남양홍씨의 단소가 모셔져 있는 문온공파의 성지(姓地)이다.

오늘 세향에는 안동김씨대종회와 대종회 태영(泰榮) 사무부총장, 군사공파 발용(勃鏞)이사, 익원공파 태신(泰信)이사께서 향측대 금일봉과 함께 귀한 발걸음으로 자리를 빛내 주셨다.

이날 문온공파총회 윤만(潤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온공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보물 제1004호로 지정되어 있는 『척약재학음집(惕若齋學吟集)』 국역사업이 영환(榮煥) 고문 주관 하에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하정승(河政承) 교수에 의해 상·하권 번역이 모두 끝나 내년 초에는 귀한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라고 전하고, 외벽 타일의 탈락으로 위험에 노출된 성내동 문온공파회관 유지보수 문제도 외벽 징크공사를 마무리하여 리모델링 못지않은 미려한 건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명년도 사업으로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38호인 문온공파 고가(古家)의 당호(堂號)로 문온공 할아버님의 호(號)인 ‘惕若齋(척약재)’와 ‘六友堂(육우당)’ 등을 제안하고, 사랑채 당호는 옥동(玉洞) 이서(李澈)가 쓴 ‘白雲樓(백운루)’가 원래 당호인 만큼 옥동 선생의 글씨 중에서 ‘白雲樓’를 집자해서 각자(刻字)하고, 나아가 척약재 할아버님의 시에서 2편을 골라 주련(柱聯)을 제작하여 안채와 사랑채에 부착하므로서 명실공히 문온공파 고가가 종택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천명하였다.

총회에서는 또 일부 임원진의 개편이 있었는데 부회장에 경회(景會 참), 이사 명주(明珠 참), 학배(鶴培 참) 3분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 한편 태길(泰吉) 상무이사는 문온공파 고가와 금수단 그리고 향토유적 제17호 금수정(金水亭) 주변 초지(草地)에 모란동산[목단원(牧丹園)]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척약재께서 ‘친시에 왕명으로

모란시[牡丹詩]를 지어 장원하여 공민왕으로부터 산원직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 모란은 우리 문온공파의 가화(家花)가 되었다. 따라서 금수단 일대에 모란동산을 조성하면 이곳을 방문하는 수많은 시인(詩人)·묵객(墨客)·여행자들에게 또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성균관대 안대회(安大會) 교수는 2019년 한국명승학회 창립을 기념하여 ‘명승학의 연구방법론과 명승 연구의 실제’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전국 명승지를 다룬 19세기 문헌 『동국명산기(東國名山記)』 『와유편(臥遊篇)』 『해좌명승(海左名勝)』 『팔선와유도(八仙臥遊圖)』 『청구남승도(靑邱覽勝圖)』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때 5개 문헌에 모두 등장하는 명승이 도봉산(道峯山), 금수정(金水亭), 금강산(金剛山) 세 곳뿐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실 조선조에서 내노라하는 정치가요, 시인치고 금수정을 노래하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다.

따라서 우리 문중이 주관이 되고 포천시의 협조를 얻어 내년부터 3~5개년의 계획 하에 모란동산[목단원(牧丹園)]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총회를 마치고 이어서 11:30부터 금수단 세향으로 이어졌다. 금수단 세향은 양간공 승택(承澤)·상락군 묘(昴)·문온공 척약재(惕若齋) 구용(九容) 할아버님 이외에 척약재 외조부이신 문온공 급암(及菴) 민사평(閔思平)과 배위이신 언양군부인 언양김씨[김취려(金就礪) 장군의 현손]의 세향을 600여년간 외손봉사를 하며 함께 모시고 있다.

척약재께서 어려서 개성 수철동의 외조부댁에서 성장하셨고, 외조부로부터 훈육을 받으면서 자라셨다고 한다. 급암 민사평 선생은 무남독녀 외동파님만 계셨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외손봉사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600여년을 면면이 이어 오고 있는 것이다.

금수단 세향과 점심을 마치고 가양리 선영으로 옮겨 부사공[명리(明理)] 세향까지 모두 마치고 나니 어느덧 오후 3시가 다 되었다. 이렇게 행복한 오늘이 있음에 위로 선조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종친과, C-19로 부득이 참석하지는 못하였으나 멀리서 마음으로나마 함께 해주신 문온공파 모든 종친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이다.

오늘 분정은 다음과 같다.

區 分	初獻官	亞獻官	終獻官	執禮	大祝	贊引	奉爐·奉香	司鑄	奉爵	奠爵
金水壇	金潤萬	金景會	金榮淇	金榮潤	金榮煥	金千萬	金德萬	金旺龍	金賢默	金相萬
副使公	金桂萬	金容九	金榮潤	金潤萬	金榮煥	-	-	金旺龍	-	金相萬

「문온공파총회 김윤만 회장 제공」

2020년 안정공(諱九德) 시제 봉향

■ 시제 개요

- 일 시 : 2020. 11. 15.(일) 11:00~
- 장 소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삼승리
- 참석자 : 21명
 - 제천시(김대균, 김홍기, 김석기 외2)
 - 충남 공주시(김재덕 외5)
 - 경기도 성남시, 경기 광주시(김봉기, 안선희, 김충기)
 - 경기도 하남시(김선호 외1)
 - 서울시(김선길 외3)
 - 방손참예 : 경기도 광주시(전서공파 김홍식 회장님)

■ 시간 계획

- 11:05 안정공 김구덕 약력 소개
(오른쪽) 증시 안정공 김구덕지묘 축문 김대균
3잔 올림(김재덕, 김대균, 김홍기)
(왼쪽) 장숙택주 신씨지묘 축문김대균
- 11:35 3잔 올림(김재덕, 김대균, 김홍식)
- 11:45 예필(점심)

■ 참여(참석) 후기

- 매년시행하는 시제때마다 보편적 일상행동으로 축문하고 다함께 제례후 점심식사 등을 하는 것이 통상절차였으나,
- 이번 시제때는 600년전 선조님(김구덕)의 발자취(약력)등 존재감을 되 새기는 기회로, 안정공파의 결속력을 다질수 있는 좋은기회가 되었음.
※ 안정공파 회장님 과 각 지역에서 참석하신 종친께서도 좋아하심.
- 아울러, 향후 김구덕묘의 노후 훼손으로 보수가 필요할 것을 예상 보수(안)을 제기하였으나. 현재특별한 의견은 없어,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해봄.
- 그리고, 안동김씨 전서공파 김홍식 회장님 격려방문에 다시한번 감사 인사를 드림
※ 2020.11.16.(월) 경기도 여주시청 “김구덕묘”보수요청 민원제기 (국민신문고)

■ 향후 계획

- 2021년 안정공파 종친들의 많은 참여 독려
- 김구덕묘의 보수에 관한 방안, 문제점, 해결방안 대한 논의 필요
- 안동김씨 안정공파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비석 탁본)

「제공 김충기」



▲ 안정공 김구덕 묘 시제(장숙택주 신씨지묘)



▲ 안정공 증시 안정공 김구덕지묘

2020년 정간공, 영삼사사공, 안렴사공 세일사 봉행



2020년 11월 19일(목요일) 오전11시 오창읍 모정리 영모재(재실)에서 형남(파종회장), 석한(대종회장), 재영(문영공회장), 재남(익원공회장)등 40여명이 참석하여 궂은 날씨에도 종인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제를 봉행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종인을 모시고 시제를 봉행하지 못하여 조상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한여름 장마 비처럼 내리는 날씨에 먼 곳에서 오신 종인 분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제공 도정공 김순영(김작가)」

〈분방기〉

현관	정간공	영삼사사공	안렴사공
초현관	석한(대종회장)	재영(문영공회장)	형남(파종회장)
아현관	태영(좌랑공회장)	권회(광주목사공)	재남(익원공회장)
종현관	동묵(진천종친회장)	재필(진천일송정)	영주(진천사석)

집례	선희(명예회장)	대축	용원(안원군)
진설	낙회(군자감정공)	사준	돈식(도정공)
봉작, 전작	태성(사직공)	봉작, 전작	태용(도정공)
시도	인식(참봉공)	직일	선희(명예회장)

文肅公 諱永暉, 上洛伯公 諱縝, 提學公 諱益達, 歲一祀 奉享



2020년11월20일(음력10월6일) 오전10시 추운날씨와 늦가을비로 불편함에도 참석하신 종친들 에게 감사 드립니다.
먼저 제학공 합사(7위)의 제례를 시작으로 교관공 합사(5위)를 올리니 12시30분이 넘어서야 예를 필하고 늦은 점심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을 감수하고 조상님의 시제봉향의 준비에 수고하신 제학공종회 (사무국장 규원) 백전종중(총무이사:석웅)께 감사 를 드립니다.

- 1) 제학공(諱益達)과 6 位 合祀
- *대축: 남응(교관공) *집례: 태현(교관공)

*초헌관: 재만(교관공), 태시(생원공) *아헌관: 복응, 덕응

*종헌관: 규원, 규문 *좌집사: 태왕 *우집사: 재명



- 2) 교관공(諱時進)과 4 位 合祀
- *대축: 남응(시정공) *집례: 태현(시정공) *초헌관: 금식(시정공)

*아헌관: 윤식(시정공) *종헌관: 여응(백은공)

*좌집사: 재철(종사랑공) *우집사: 재명(백은공)
- 아울러 제학공파종회 부평공,비안공,생원공,교관공,그리고 소파종중에서 약30여명이 참석하여 작은시제봉행을 아무탈 없이 마쳤습니다.
교관공참석종인:남응회장, 태현고문, 윤식학암회장, 영웅전곡회장, 평응납악회장, 임원 태왕, 재삼, 석웅, 여응, 재명, 재철, 낙응, 금식, 명회

「2020년11월20일 병천 교관공파 백전종중 여응 기사제공」

익원공(휘 사형) 제613주기 불천위 제향 봉행



2020년 9월 16일 (음7. 29) 13시에 전북 고창의 익원공 부조묘(도암서원 내)에서 상락부원군 金士衡선조님 제613주기 불천위 제향이 엄숙히 봉행되었다. 지난해 연말부터 극성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시책에 따라 在男 파종회장과 在永 명예회장을 비롯한 소수의 관계자들과 대중회에서 泰榮사무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되었으며 분정은 다음과 같다.

헌관 및 집사	이름	직위	거주지	비고
초헌관(初獻官)	수인(洙寅)	부회장	고창	좌랑공
아헌관(亞獻官)	영수(榮秀)	사무국장	의정부	전참공
종헌관(終獻官)	정묵(正默)	이사	부산	효소공
집례(執禮)	태철(泰喆)	〃	수원	문정공
대축(大祝)	경회(京會)	〃	고창	좌랑공
진설(陳設)	일수(壹洙)	좌랑공 의전	〃	〃
찬인(贊引)	태신(泰信)	부회장	서울	목사공
봉향(奉香)	재원(在源)	이사	부산	효소공
사준(司樽)	태용(泰龍)	부회장	수원	문정공
전작(奠爵)	형식(亨植)	이사	안산	〃
직일(直日)	재영(在永)	명예회장	수원	문정공



제례 봉행 후, 在男 파종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의 정국속에서 최대한 간소하며 단출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기를 바라며 하루 빨리 코로나가 괴멸되어 내년 제향에는 많은 종원들이 참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바쁘신 가운데도 익원공 할아버지 613주기 불천위 제향에 참석하여 주신 종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날 점심식사는 도시락으로 대체하였으며 제향 후 음복을 마치고 在男회장께서 준비한 간단한 선물을 받고 귀경길에 올랐다.
귀경길에는 조선시대 전형적인 양반 가옥 형태의 전라북도 민속자료 제29호 보정 김정희 고가(普亭 金正會 古家：익원공 20代孫)를 방문하여 손자인 교육학박사로서 군장대(群長大) 교수 및 한국교육사학회장 역임하고 현재 연정(延亭)교육문화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연정 김경식(淵亭 金璟植)선생을 만나 답소를 나누고 저술한 책《연정시문집》을 받고, 김제여중 교장을 역임한 사모님인 광주이씨 수훈 이행자(守訓 李幸子)여사님께서 향산화와 성인병에 으뜸인 연잎차를 내오셔서 은은한 연잎의 향을 느끼며 잠깐이나마 좋은 시간을 보내고, 바로 옆에 위치한 고창군 향토문화유산 제2호인 도산서당을 둘러보고 고창에서의 아쉬운 일정을 마쳤다.

「기사제공: 문영공종회 총무 김태철」

제613주기 익원공 휘 김사형 향사 및 제584주기 밀직사사공 향사



2020년 11월 20일(음. 10월 6일) 금요일 11시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산 49번지 묘하에서 코로라 19 방역 체계 1.5단계 시행관계로 참제 인원을 조정하여 김석한 대총회장 김재영 문영공 회장을 비롯 고문 회장단 등 50여 종친이 참제 날씨관계로 재실에서 정성껏 마련한 제물을 올리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향사가 봉행되었다. 향사전 분정회의에서 익원공

향사에는 초헌관에 김석한(대총회장) 아헌관에 김형남(안렴사공파총회장) . 종헌관에 김재영(문영공회장) 집례 김태철(문영공 총무이사) 대축 형식 이사 봉향 태용. 봉로 봉작 재정. 사준 태연. 전작 태신. 시도 영수 전침공 직일 재용. 등이 추천 되어 향사를 봉향 한 후 이어서 밀직사사공 향사를 봉향 하였다. 밀직사사공 향사에는 초헌관에 김재남 익원공파총회 회장. 아헌관에는 김태정 목사공 강릉. 종헌관에는 김재훈 고문 등이 추천 되었으며. 제례행사를 모두마치고 낙포재 재실에 마련한 음식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담소로 조상님의 음덕을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었다. 김재남 파총회장에 이어 김석한 대총회장께서 인사말과 선물로 무릎담요 60개(개당 25,000원 상당)기증하였다. 이날 당진 김용세 고문께서도 직접 빗

은 백련맑은 술 를 보내와 제주와 음복주로 사용하였다.

익원공파 시조이신 휘 김사형의 호는 洛圃이고 안동부인(安東府人)이시다. 우리 안동 김씨의 중시조이신 상락군 개국공신 충렬공의 현손 이시며 중대광 상락군 김순(문영공)의 증손 이시고 상락후 김영후(정간공)의 손자이시며. 보국승록대부 영삼사사 상락군 金蕙(김천)의 자이다. 고려 충혜왕 2년 辛巳年(1341년)에 출생하여 고려의 벼슬은 단성보리공신삼사좌사 동판도평의사사를 역임하셨으며 조선왕조에서는 순충분의 자명동덕 개국공신 추충협찬 정란정사공신 대광승록대부 의정부 좌정승 겸 영경연사감춘추관사 세자부 상락부원군 시호는 익원공 이시다. 태종 7년 정해년(1341년) 7월 30일 향년 67세로 서거하셨으며子是 둘이며 큰아들은 陞(육)동지중추부사 둘째는 陞(승)은 밀직사사공이시다. 조준과 더불어 8년동안 정승에 있었으며 재임하시는 동안 강직하고 명확한 성품으로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다.



익원공파 전침공(諱 宗潤) 세일사 봉향



2020년 10월 18일 (음력 9월 2일) 오전 11시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산 106번지 선영에서 대총회장 석한님, 익원공파 사무국장 영수

님, 안렴사공파 전회장 선희님, 안렴사공파 부회장 재명님, 충민공종친회 총무 수희부부님, 전침공파총회장 재택부부님, 총무 총식부부를 비롯하여 종친 20여명이 참석하여 선조님 세일사를 봉향 하였다. 먼저 태진, 총식이 산신제를 지내고 정갈하게 준비한 제물을 진설하여 초헌관 영수님, 아헌관 재명님, 종헌관 태진님이 봉헌하였다. 집례 선희님의 홀에 따라 대축 수희님이 독축하였으며 좌집사 언묵·우집사 총식·사준은 재택이 맡아 진행하고 선대 순으로 전침공(諱 宗潤)·감찰공(諱 琛)·청안현감공(諱 善孫)·형조좌랑공(諱 淡)의 세일사를 봉향하였다. 예필후 대총회장 석한님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묘전에서 전침공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무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젊은 종친들의 참석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점심식사를 하며 종친간 돈독의 시간을 갖었다.

「記錄 전침공총무 총식」

정의공(諱 哲) 향사 봉행



2020년 11월 15일(일요일)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432번지 정의공(諱 哲) 사적비에서 시향을 봉향하였습니다.

정의공파총회는 태석 회장님을 비롯한 종친님들이 함께하여 예년과 같이 선조님의 위업을 기리며 후손으로서 예를 다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지만 조상모시는 일에 함께 해주신 종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초헌관 태석 회장·아헌관 수선 종친·종헌관 수용 종친께서 헌작하였습니다. 시향 후 음복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해산하였습니다.



「자료제공 총무 수호」

철원의 부사공 후손 시제 봉행



부사공(휘 天順) 파조님 이하 시제는 매년 음력 10월16일(금년 11월30일) 홍성군 은하면에 소재한 선영의 재사(齋舍)에서 종손 희용을 비롯한 경향각지에서 오신 종친들이 모셔 왔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밀폐된 재실에서의 제향은 연로하신 참여자들의 건강이 염려된다는 종손 및 원로 종친들의 의견에 따라 제향을 껴사하였다. 하지만 부사공 5대손이시고 철원 입향조이신 9세 판교공(휘 麟祥)선조님과 판교공 장인이신 임청(任淸, 풍천인), 10세 승지공(휘 勅)선조님 시제는 음력 10월1일(양력 11월15일) 철원 동송읍 하갈리 산17소재 선영 아래 하우스에서 초헌관에 판교공 종손 성호, 아헌관에 정호, 종헌관에 규선이 잔을 올리고 파종회장인 원호가 대축을 하고 제

향을 모셨다. 특히 판교공 장인이신 임청(任淸)은 진사로 통례원 인의(引儀)를 역임 하셨으나 슬하에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을 두었는데 맏사위이신 판교공께서 제사를 모셨고 종가에서 후손들이 500여년을 외손봉사로 시제를 지내 왔다. 수 년전까지 만해도 둘째사위 안(순흥)씨 집안과 셋째사위 박(반남)씨 집안 후손들도 제향일에 맞춰 제수를 미리 보내는 등 참여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갈리 시제를 마치고 이곳에서 약 4km 떨어진 양지리 산31 소재 선영에서 11세 참판공(휘 地四), 13세 수사공(휘 益鍊)은 양지리 산31 소재 선영에서 종손의 초헌례와 아헌례에 규세, 재한, 종헌례에 규면, 경호가 잔을 올리고 철원에서의 시향을 모두 마친 후 재한님이 관리하는 파프리카 농장 하우스에서 따끈한 떡국과 오대미 햅쌀로 지어낸 점심을 먹고 금년시제를 마무리하였다.

참석자는 종손 성호 내외와 태영, 원호 내외, 민호 내외, 규선 내외, 재한 내외, 재철씨와 정호, 현호 형제와 태정 등 3대, 규세, 규면, 규훈형제, 재기, 경호, 철호 형제 등 코로나19 여파로 참례하신 종친이 많지 않았다. 13세 수사공 자제분 14세 수사공 조상님 묘소는 민통선 안쪽으로 출입을 할 수 없어 시제는 모시지를 못하고 종가에서 매년 추석에 잔을 올리고 있으며, 12세 요동백 충무공과 배위 시제는 별도로 매년 음력 9월 9일 양지리와 삼송리 정정부인 묘소에서 모셔왔다.

부사공파 회장 원호

경자년 시향제를 고유제로 대체하다.



서운관정공과 종중회는 2020년(경자년) 시향은 중공의 폐렴(코로나-19)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가 펜데믹(pandemic)이 되어 예년처럼 종원을 모시고 봉행하지 못하고 김덕영이사장을 비롯한 김각영부이사장, 김주혁감사, 김상호, 김주일이사 등 몇 분만이 송조상문(崇祖尙門)과 국난극복(國難克服)을 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굳은 신념을 다지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 이 한 몸 나라를 위해 바치고자 결의를 다졌습니다. 저희들의 소(蔬)를 가납하시도록 충심으로 잔과 제문을 낭송했습니다.



고유제 송(告由祭 頌)

자유의 빛으로 살리라

청암 김상호(서)/서운관정공 제23대손/ 충렬공 27대손

석양빛에 푸른 대지는 붉게 물들어오고
허리 굽은 백송의 솔잎은 바람에 흔들린다
검은 안개비에 태양이 저물어가고
숨죽인 백성의 서러움은 눈물 가득고이네

조상의 얼과 넋이 나의 정체이려니
효와 예로서 받들어 이어가리다
선조는 지극한 충절로 나라를 지키셨으니
나는 의와 용으로 이 나라를 지키리라

빛은 자유의 생명으로 어둠에 고이니
침몰한 동해바다의 태양을 건져 올려
붉게 물든 대지를 하얗게 물들이면
천년의 후대는 자유의 빛으로 살리라

한 고유제로 대체 봉행했습니다. 1970년 종중을 설립한 이래 50년 만에 초유의 일이다.

송조상문은 나의 정체성확립과 나의 가치관확립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정체성은 선조의 얼과 넋이고 나의 가치관은 나의 의지요, 효(孝)요, 예(禮)라 할 것인바 고유제로 조상의 넋을 기리기 위해 후손의 효와 예를 다할 것을 다짐했으며, 국난극복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의 확립에서 비롯되는바 자유의 사상과 이념을 통한 굳은 충절과 역사적 사명감에서 이 한 몸 조국에 바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납니다.

서운관정공(諱 緩) 파시조께서는 조선조 개국당시 충신은 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이라하신 충심을 후손은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이를 받들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 위협과 중공의 한반도 지배를 위한 세력 확장이 노골화 되어가고 있으나 국방과 안보는 더욱 허술해지고 법치의 상실로 나라는 더욱 어지럽고 경제파탄으로 백성의 눈물과 한숨이 가득한바

제학공파 교관공(휘 시진) 四子(휘 면) 후손 추석전 묘소참배 후기



2020년 9월 25일 천안시 북면 전곡리 산27번지 백은공조부모묘 묘소에 도착하니 오전 10시 정각 백은공파(전곡종중) 후손모임은 매년 추석전에 4대 선조님 참배를 시작한지 5년이다. 백은공파전곡종중회장이신 영응님과 태건님이 먼저 도착하여 기다린다. 이어 재명·탁응·석응(교관공파(諱時進)백전종중 총무이사) 전곡종중 유사인 여응이 도착하여 감사봉 아래 묘소까지 200m 높이를 오른다. 祭酒와 과일 북어포를 상석에 올려 진설을 마쳤다. 영응회장순으로 제주를 올리며 이어 참석한 종인순으로 제주를 따르며 정성스럽게 배를 한다. 참고로 매년 참배행사 때 위낙 외지고 깊고 높은 지역이라 멧돼지 기타 동물이 묘소경관을 뒤집어 놓아서 2018년 9월 8일 사후 329년만에 사초와 둘레석을 설치한 후 작년에 잔디를 보강하였더니

제법 잔디가 잘자라서 다행이다. 코로나 때문에 회장님과 함께 별초를 한지 열흘 만에 다시 올라오니 감회가 새롭다. 참배를 마치고 감사봉을 내려와 성남면 신덕리(거리 20km) 사헌부지평공(휘중기), 통덕랑공(휘중일, 응자 9대조) 묘소에 도착하니 11시가 넘었다. 묘소를 관리하던 은교님이 외출 중이라 부인이 대신 우리를 맞이해 준다. 주변에 공장신축 텃파기 공사에 소리가 시끄럽지만 정성스럽게 참배를 마치고 다시 병천 가전리 산 25-1번지 내(12km)에 모신 백은공 둘째아들이신 부사공(휘득추, 조동종중 응자 10대조) 묘소에 도착하니 12시가 다 되었다. 2015년 4월에 봉분을 다시 사초하여 사진대로 관리가 잘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사공의 손이신 가전리 산 24-1 통덕랑공(諱可晉) 묘소에서 참배를 마치고 오후 1시가 넘었다. 인근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마치고 종중현안을 토의한 후 각자 편한마음으로 집으로 향한다. 참석한 종인 영응·낙응·석응·재명·탁응·계응·여응·태건 종인에게 감사를 전한다.

● 백은공(諱 緬): 통덕랑(1612생~1689卒) 목천유생. 백은집발행. 목천대록지 인물록. 황종해·김만중·김득신·시암조상우와 교유하였으며 도정강사. 은석사에서 시와 문학을 강론. 백계세고(5대손 우원저)에 18수 시문이 유고 되었으며 배위 공인 파평윤씨이며 생삼남으로 득구·득추·득려이며 묘비문은 3자 득려가 撰 2자 부사공 득추 書 이다.

충무공 김시민장군 탄신 466주년 문화제 개최

“9월 19일, 제4회 전국 통일문예작품 공모 시상도 병행”



김시민장군 탄신 466주년 기념 문화제가 19일 오전 11시 문화살롱 ‘제비’에서 열렸다. 충무공 김시민장군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코로나 확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는데, 생가지에서 올려지던 고유제는 천안삼거리 장군 동상에서 참배하는 것으로 대신했으며, 봉서홀 등 실내강당에서 펼쳐지던 기념행사는 임원들과 문중관계자 등 50여 명만이 참석해 간소하면서도 규모있는 진행이 이루어졌다.

문화제를 주관한 김법해 회장은 기념사에서 “우리가 충무공을 잊지 않고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공의 업적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몸소 실천하신 애국애족의 고귀한 인격과 충의정신이 귀감으로 남았기 때문이다.”면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때 나라와 백성을 지키려 애쓰다 목숨을 바쳤던 충무공을 기억하며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나누는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이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제4회 전국 통일문예작품 공모 시상식이 열렸는데, 학생부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은 서울 보인고 2학년 윤영규

군이, 최우수상인 충남교육감상은 천안성정중 최지성 군 등 4명이, 일반부 대상인 통일부장관상은 대전 조두현 씨가, 최우수상인 충남도지사상은 천안의 고아라, 전주 김완수 씨가 차지하는 등 모두 42명이 천안시장상과 천안교육장상 등 부문별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기념사업회는 임진왜란 3대첩 중 하나인 진주성 전투의 영웅 김시민장군의 호국정신을 되새기고, 그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사단법인으로 발족, 매년 탄신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사료집 발간, 국제학술세미나, 동상 및 유허비 건립, 소설 발간, 백일장, 연극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병천에 있던 사당 충렬사가 훼손된 이후 복원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사당 건립 10만 명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관계기관에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건의, 130년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기념사업회 임원 및 문학 공모 수상자들

제20회 연기대첩제 개최

“국난극복 충의 정신 뜻을 기리며 성황리에 열려”

세종문화원은 31일 고북시립공원에서 세종시민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0회 연기대첩제’를 개최했다. ‘연기대첩제’는 고려시대 몽고 합단적을 세종 정좌산(연서면 쌍전리)과 원수산(연기면 세종리)에서 크게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역사적 사실을 기리기 위함이다. 당초 연기대첩제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2차 승전일인 음력 5월 8일 제를 지낼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되어 10월 31일(토) 오전 10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상운 문화원장의 경과보고,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부시장의 추도사, 이태환 세종시의회의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축사, 안동김씨대종회 김홍식부회장의 축사, 그리고 헌화 분향, 문화

공연(보림공연, 가야금병창, 사물놀이) 순으로 진행됐다.

한상운 원장은 “연기대첩제는 몽고 합단적을 맞아 싸워 승전한 자랑스런 우리 고장의 정신적 유산을 우리도 지키고 후손들에게 알려줄 의무를 느끼며, 조상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할 행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우리 고장이 연기대첩제의 성지임을 알리고 연기대첩 승리 역사의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안동김씨대종회는 충렬공 둘째아드님인 김흔(金忻)장군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현향하기 위한 봉축의 화환을 드렸으며 전서공파종회장 홍식님을 비롯하여 이지역 종친 10여분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냈다.



제20회 연기대첩제 축사

오늘 새벽길 상쾌한 공기 높고 파란하늘 아름다운 산야 만추에 들녘. 선조님들께서 수천년 지켜온 우리 강산 이지요.안녕 하십니까? 안동김씨 김흔장군 26세손 전서공파종회장 김홍식 인사드립니다.

2020년 4월 초 올해 연기대첩제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된다는 통보를 받고 몇 일 밤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잠을 설쳤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기념제를 올릴 수 있게 되어 안동김씨 문중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축사에 앞서 두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첫째는 한상운 문화원장님, 황우성 향토소장님, 고려사 윤용협사학자님, 이해준 교수님의 고증 으로 연기대첩 주역 김흔장군 이야기를 김세인 작가님을 통해 동화책자로 발간하여 전국 문화원에 배포 하였고, 저희 안동김 문중에서는 약 60만 종친들에게 홍보하여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 둘째는 금년 하반기에 문화원 주관 연기대첩 학술회를 개최하였지요. 어려운 국난에도 숨은 역사를 발굴하고 발전의 기회로 거듭나기를 노력하시는 문화원장님, 향토소장님, 고려사 전문연구 교수님들, 문화원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 결과물로는 연기대첩제를 주제로 한 문화와 경제를 협업하여 지역

안동김씨 대종회 부회장 김 홍식

경제 활성화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연기대첩은 729년 전의 역사를 오늘에 조명하기 위하여 38만 세종시 조상호 경제부시장님, 이태환 시의회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희유 장군, 김흔 장군, 인후장군 후손 어른신 시민 여러분 모두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자리 또한 헛되지 않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셨는지요. 역사적으로 우리의 선조님들은 현대의 우리들이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는 더 부강한 나라, 더 부유한 민족으로 거듭나길 바라시며 나라에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연기대첩 전장에서 이름없이 순국하신 수 많은 영령님들께 머리숙여 예를 드립니다. 또한 연기대첩을 승전에 전투로 이끄신 김흔 장군,한희유 장군,인후장군 세분 장군의 숭고한 정신 그 정신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속에서 행사 준비로 수고하신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제37회 천안시민의 상 시상식 개최. 5개 부문 수상자 선정



▲박상돈(왼쪽)천안시장이 13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7회 천안 시민의상’ 시상식 시민의상’시상식에서 김태협 교사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제공천안시

천안시는 13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7회 천안 시민의 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천안 시민의 상은 우수한 연구·창작 및 의욕적인 애향활동 등을 통해 향토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 지역주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며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시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교육학술 부문 김

태협(충렬공25대손 안렴사공파) 천안상업고등학교 교사 ▲문화예술 부문 조춘자 작가 ▲사회봉사 부문 정경재 천안시새마을회 회장 ▲지역경제 부문 어진선 삼진정공(주) 대표이사 ▲특별상 부문 신성철 일봉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체육 진흥 부문에는 후보자가 없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 부부 내외가 자리를 함께하고, 박상돈 천안시장이 직접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해 기쁨을 나뉘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김태협(61)씨는 특성화고 교사로서 전문 교과 교육활동을 펼치며 전공교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글로벌 역량을 지도하는 등 진로개척에 게을리 하지 않았고, 청소년 단체와 깊은 인연으로 31년 5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 실천 및 청소년 지도로 교육학술 부문 수상자에 선정됐다. 천안 시민의 상은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진흥 ▲사회봉사 ▲지역경제 ▲특별상 등 모두 6개 부문에 걸쳐 공모와 심사를 통해 5개부문에 대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자료제공 김 응해

한무대와지탄(恨無大蛙之嘆)

「대종회 고문 동천 김창희」



잘 훈련된 만 명의 군사보다 유능한 장수 한사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병법의 이야기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영도하던 수군은 연전연승의 전과를 올렸지만 같은 병력으로 지휘관이 원균(元均)으로 교체되자 연전연패를 거듭한 사례는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 촉(蜀)나라 제갈량(諸葛亮)은 군령을 어기고 싸움에서 패한 마속(馬謖)을 울면서 참형에 처하였다. 이 고사는 나라의 기강이나 군율을 위해서는 자기가 아끼는 사람도 버린다는 비유이다. 이것을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 한다.

조선조 중기의 명신이요, 청백리에 녹선 된 이후백(李後白)은 양관(兩館) 대제학을 겸하고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그는 백관을 조율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명태 한 마리도 뇌물로 받지 않은 청관이었다.

어느 때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한 육촌(六寸) 동생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다. 가산도 돌보고 아이들 글도 가르치고 주변을 정갈하게 정리하며 밤이면 열심히 공부하였지만 아무 말이 없었다. 이후백은 이 사람 쓸 만하다고 생각하고 황해도 봉산(鳳山)고을의 임기가 끝나면 임용할까 마음먹고 있었다. 기다리던 육촌 동생이 지쳐서 입을 열고 말았다. 이후백은 ‘안되네’하고 비망록을 펼쳐 보였다. “며칠 뒤에 봉산고을 원으로 보내려고 하였는데”하고 한탄하였다. 나라의 벼슬은 공도일세. 청탁하는 사람이 벼슬을 얻게 되면 그것은 이미 공도가 아닐세. 하고 육촌동생을 시골로 돌려보냈다.

옛날 어느 임금의 평상복 차림으로 민정을 살피기 위해 장안을 순시하고 있었다. 삼경이 지났는데도 등불이 반짝이고 글 읽는 소리가 청아하게 흘러나오는 집이 있었다. 왕이 주인을 찾아 초가집의 작은 방에 들어가니 한 선비가 글을 읽고 있었다. 맞은편 벽에는 ‘한무대와지탄(恨無大蛙之嘆)’이라는 글귀가 벽에 걸려 있었다. 이 말은 큰개구리가 없는 것이 한스럽다는 뜻이다. 왕이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연유를 물었다. 선비는 이렇게 대답한다.

“옛날에 꾀꼬리와 뻥새가 노래자랑대회를 열었는데 그 심사를 맡은 이는 개구리를 좋아하는 황새였다. 자기의 노래 실력이 꾀꼬리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는 뻥새는 구하기 힘든 큰 개구리를 잡아 황새에게 선물로 보내고 눈을 껌벅이면서 넌지시 부탁하였다. 드디어 노래자랑은 시작되었다. 맛 좋은 개구리를 얻어먹은 황새는 아무렇지도 않는 듯 심사석에 앉았다. 꾀꼬리는 고운 목소리로 한곡을 불렀다. 노련한 황새는 노래에 걸맞게 훌륭한 평을 내렸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 소리 너무나 기교스럽고 슬프구나(美哉美哉其聲可謂巧矣). 다음 차례로 뻥새가 무뚝뚝하게도 한곡을 불렀지만 꾀꼬리의 노래와 비교할 수가 없었다. 황새는 자못 진지한 표정을 짓고 심사평을 하였다. 씩씩하다 씩씩하다 그 소리 우렁차 대장부의 기상이다(壯哉壯哉其聲可謂丈夫之像), 하고 뻥새에게 장원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저는 글공부를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진 친인척도 없고 시험관에 바칠 돈도 없습니다. 몇 번 응시해도 번번이 낙방하니 이는 개구리를 뇌물로 바치지 못한 꾀꼬리 처지가 저와 같다고 생각하여 그 글귀를 걸어놓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그 선비에게 멀지 않아 조정에서는 별과(別科) 시험이 있다고 하니 그때 나와 함께 과거장에 나가자고 약속하고 돌아왔다. 그는 얼마 후에 별과 과거에 나가보니 시험제목이 ”한무대와지탄“이었다. 선비는 마침내 소원을 풀고 벼슬길로 나갔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뇌물이나 친인척의 청탁으로 인사행정을 흐리게 하는 세태를 꼬집어 말하였다. 인사의 불공정과 인신의 구속이나 재판의 불

공정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역사 이래. 있어온 일들이다.

어느 고고학자가 출토한 갑골문자(甲骨文)에도 요즘 세태를 한탄한 글귀가 있었다고 한다. 나랏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뇌물이나 청탁에 넘어가 정도를 어기면 그 백성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대적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정치가가 사심을 가지면 백성이 못살게 되며 학자가 사심을 가지면 역사를 그르친다는 말이 있다. 깊은 생각 없이 즉흥적인 말솜씨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일시적인 인기보다는 마음을 중시하고 말 보다는 실행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지도자의 정중한 무게는 다변도 달변도 아닌 깊은 생각에서 우리나라의 신언(慎言)이어야 한다. 말은 어눌한 듯 행동은 민첩하게(訥於言敏於行). 이는 공자의 말씀이다. 모든 백성들은 개구리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채근담(菜根譚)의 글 두 구절을 옮겨 적는다. 간교한 사람을 물리치고 아첨하는 사람을 막는 데는 한 갈래 도망갈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만약 그들로 하여금 한군데도 몸돌곳을 없게 한다면 마치 쥐구멍을 막는 것과 같아서 탈출구가 없는 그들은 모든 소중한 기물을 물어뜯어 못쓰게 할 것이다.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제거할 때는 물러갈 길을 터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벼슬의 지위는 너무 성하지 말아야 하니 있는 힘을 다 한다면 곧 쇠할 것이며 행실은 지나치게 고결하여서는 안 되나니 지나치게 고결하면 곧 비방이 일어나고 방해되는 일이 닥치게 된다. 벼슬이 너무 높으면 위험하고 능력을 마지막까지 발휘하면 바닥이 나며 행실도 너무 고상하면 비방이 뒤따르게 된다고 하였느니라.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전 대종회장 김남응

아름다운 이 가을도 깊어만 가는군요
정년 이 가을은 겸손과 감사의 계절이며
또한 이 가을은 풍요와 사랑의 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영예스럽고 명문거족인
우리는 하나가 되어
정체성(正體性)을 확립하고
자긍심(自矜心)을 갖게하며
깊은 역사의식을 함양시키자는
자랑스러운 꽃 길을 밟으렵니다.



힘겨웁고 거친일
노여움과 괴로운 일
하나된 우리가 기쁨으로 딛고
동트는 희망찬 햇살을 맞이 하렵니다.

초년 얼굴은 부모가 준것이고
말년의 얼굴은 자신이 가꾼다고 합니다
남에게 살바 잡힐 일 저지르지 않고
더 이상 가지려 하지 않고
먹는 것 밝히지도 않고 아름다운 음악 듣고
주위와 사랑 나누며, 오순도순 살다가
수평선에 배 사라지듯
조용히 눈 감고 싶습니다.



祭禮에서 諸 執事官 名稱 및 하는 일

- 行事執事官(행사 집사관): 제사와 관련된 나라의 일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아치. 헌관, 전사관, 집례, 대축(大祝), 재랑(齎郎), 장생령, 알자(謁者), 찬자(贊者), 찬례(贊禮), 감찰(監察) 따위를 이른다.
- 典祀官(전사관): 대한제국(大韓帝國) 때 궁내부(宮內府)에 딸린 임시(臨時) 벼슬. 나라 제사(祭祀)에 드는 물건(物件)을 맡아보았음
- 奉俎官(봉조관): 국가의 큰 제향이 있을 때에 적대(炙臺)를 받들어 진조관(進俎官)에게 올리는 일을 맡은 벼슬아치.
- 進俎官(진조관):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때에, 고기를 담은 조(俎)를 봉조관(奉俎官)으로부터 전해 받아서 제상 위에 올리는 벼슬아치. 薦俎官.
- 謁者(알자): 알현(謁見)을 청하는 사람. 빈객(賓客)을 주인(主人)에게 인도(引導)하는 사람. 고려(高麗) 내알사의 종5품(從五品) 벼슬. 고려(高麗) 내시부(內侍府)의 종7품(從七品) 벼슬
- 贊者(찬자): ①찬성자(贊成者) ②제향(祭享) 때에 홀기(笏記)를 맡아보던 임시직(臨時職), 나라 제사 때에 홀기(笏記)를 맡아보던 임시 직무.
- 贊引(찬인): 제향(祭享) 때에 제사의 진행 절차를 돕고 인도하는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
- 執禮(집례): ①옛날, 제향(祭享)때 임시(臨時)로 두던 벼슬 ②예식(禮式)을 집행(執行)함, 나라의 제사 때에 홀기(笏記)를 읽는 일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
- 祝官(축관): 1.제사때에 축문을 읽는 사람.
2.종묘, 사직, 문묘의 제사 때에 축문을 맡아 읽던 임시 벼슬. 참외(參外)의 관원으로 임명하였다
- 執事(집사): 제사 때 헌관을 도와 잔을 올리는데 옆에서 도와 주는 사람을 일컫음.
- 奉爐(봉로): 제사 때 향로를 받들고 헌관을 도와 향을 피우는데 옆에서 도와 주는 사람을 일컫음.
- 奉香(봉향): 제사 때 헌관을 도와 향을 피우는데 옆에서 도와 주는 사람을 일컫음

- 奉爵(봉작): 연회(宴會)나 제향(祭享)이 있을 때에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은 사람.
- 奠爵(전작): 종묘 제사에서, 헌관이 주는 술잔을 집사관이 받아 신위(神位) 앞에 드리던 일.
- 奠酌(전작): “奠爵”과 같다.
- 奠酌(전작): 奠 정할 전/제사 전, 멈출 정 酌 술 부을 작/잔질할 작
- 司樽(사준): 제례(祭禮) 때 제주(祭酒) 단지를 맡은 벼슬아치. 司樽. 사준(司樽) 향례(享禮) 때에, 제주(祭酒) 단지를 맡아보던 사람.
- 時到(시도): 제각(祭閣) · 서원 · 향교 등에 비치하여 참배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방명록인
- 陳設(진설): 제상에 제물의 위치를 정하고 감독하는 사람
- 直日(직일): 제례를 총감독하고 예필 후 강평하는 사람

(주)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옥/사찰/제실

보수단청업 01-16-004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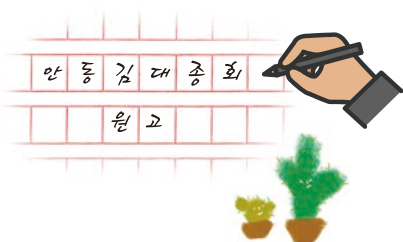


대표이사 김진식
(총령공 27세손, 익원공파)

문화재기능자 대목수 제 4459호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장승진흥회 이사

경북 영주시 하망동 325-19(3F)
TEL. (054)636-1239
C·P. 010-3507-1239
E-mail: ddundol@hanmail.net

대중회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안동김씨대중회에서는 대중회보(중보)를 년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 파종회와 종친들께서는 종인들의 미담이나 선조님들의 사료 발굴자료,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 자랑하고 싶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싣고자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제출마감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우편, E-mail: andongkimgu@naver.com
- ◎ 자료제출 : 원고와 사진 등
- ◎ 제출처 : 대중회사무처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1
- ◎ 연락처 : 전화 (02)2244-3717, (02)2244-3710
팩스 (02)2243-1073

회비를 보내주신 종친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9.01.~2020.11.30 기준)

◎ 임원회비(부회장)

- 1백만원 : (翼)석한 - 대중회장
- 20만원 : (郡)준희, (文)윤만, (大)찬희, (正)태석, (翼)태성 · 재교 (提)태선

◎ 임원회비 (이사)

- 10만원 : (郡)장묵, (大)태권, (提)규원, (提)운철, (按)태준, (提)봉희, (翼)재택 · 상묵 · 태강

◎ 통상회비(일반)

- 20만원 : (典)양천중중 · 5만원 : (大)파종회
- 3만원 : (文)명수, (翼)원선, (按)경만
- 2만원 : (典)수영, (提)태덕, (提)한영, (安)선호, (書)규태

- ◎ 찬조금 · 15만원 : (按)웅희 · 10만원 : (郡)재근, (翼)동진
· 5만원 : (사천김씨)만열 - 성남

- ◎ 평생회비 · 20만원 : (郡)건희, (郡)병수

회비 및 성금 계좌번호 안내	
※ 반드시 소속(派)과 이름을 병기하시어 입금하시고 대중회 02-2244-371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임원회비(부회장) - 20만원 · 임원회비(이사) - 10만원 · 평생회비(개인) - 20만원 · 통상회비(개인) - 2만원 이상 · 찬조금(개인 및 단체) -	국민은행 356201-04-133305 안동김씨대중회